

'89 양돈이슈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안 수 환
(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국내 양돈업에 돼지오제스키병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인식되는데 약 2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병이 계속 확산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병에 의한 경제적인 누적 피해와 본의는 아니겠지만 타 양돈장으로 이 병을 전파함으로써 야기되는 도덕적,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오제스키병 방역대책을 제시하였고, 현재에도 업계·학계·연구소 및 방역당국이 이 병의 종합적인 근절대책에 관해 토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이 병을 근절한다는 이상은 현실을 수용할 수 없는 공상으로 퇴조해 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필자는 현재 방역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제시코저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원활히 수행되어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함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현재 실시중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은 그동안 2차례 수정·보완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과연 농가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실시될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혈청검사 결과 양성돈의 전두수 살처분 보상이란 원칙에만 충실하여 전염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발생농장의 경제적·사회적 제반 요인이 자기에겐 상당히 불리하다면 방역 실시요령에 응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전염원의 부분적 제거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경기도 남양주군 및 용인군의 집단 양돈부락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심각하게 오염된 농장이면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획일적인) 방역정책보다 농장의 환경과 역할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책을 유도,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 방역 실시요령중 “항체양성돈의 살처분 보상” 정책을 외국과 같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도태”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임상증상을 수반하는 현 환돈은 당연히 살처분·매몰해야 하나, 항체양성돈은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하여 이용토록 하고, 도축장이외의 장소로 판매 또는 이동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농장간 또는 개체간의 전파 및 전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역기술이 동원되고 아울러 이를 홍보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항체가 검출되는 항체 양성개체는 이 병으로부터 회복된 상태이며, 극히 소량의 병원체가 존재하더라도 신경조직 또는 임파조직 등의 제한된 부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서의 병원체 확산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오제스키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하지

않으므로 유해요인이 배제되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모두 항체 양성돈을 색출하여 도축장으로 출하·도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처분 보상금의 지출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결국 효율적인 방역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아울러 전두수 살처분·매몰에 의한 생업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의 호응을 얻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는 야외 예찰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혈청학적 역할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찰정보망은 조직상으로도 체계적이지 못하며, 인적 구성면에서도 예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방역요원이 아닌 각 부처의 몇개 기관의 극히 제한된 인원이 모자이크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돼지오제스키병을 근절하려면 양돈업계, 학계 및 방역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전담기구를 발족시켜 필요한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장비와 예산을 지원받아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기구는 시한적 조직으로 오제스키병이 근절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해체하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 미국의 동물질병 긴급방역 기구를 참고 자료로 발췌하였으며, 이 조직의 설치목적, 조직인력, 운영방법 및 부서별 기능과 임무를 요약하였다.

미국의 동물질병 긴급방역기구

● 설치목적

- 구제역, 뉴캐슬, 닭 인프루엔자, 돼지콜레라, 베네주엘라 뇌척수막염 등 중요 전염병 발생시 조기박멸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함.

송년기획특집/ '89년을 보내며, 이 문제를 생각한다.

● 조직인력

- 평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 기능별로 조직 편성함
- 가축방역 관계기관, 군, 대학 및 기타 유관기관의 인력 동원

● 운영

- 평 소 : 방역계획, 정보, 물자 인력 등의 확보 및 가상훈련 실시
- 긴급사태시 : 지정 요원은 긴급방역기구에 참가 임무수행 (평소 임무의 겸임 불가)

부서별 기능 및 임무

(본부)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긴급사태시 임무 총괄
- 질병 발생지역에 방역 본부설치 운영
- 방역대책과 방법, 인력운영, 권한과 법적 인 문제 등의 조정 점검
- 정보 및 홍보의 강화
- 평소에 정보, 인력, 기구, 예산 등의 확보 및 법규 실시 방법의 점검

2. 군 지원

- 수의관으로써 위원장을 보좌함
- 군의 장비, 인력 및 기타 기술지원

3. 축산물 검사

- 도축(계)장과 관련된 긴급방역 실시상의 문제점 자문

4. 질병전문가

- 특정질병의 전문적인 자문

“

혈청학적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작업 과정을 선진국처럼 위생검사에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도축되는 가축의 사육장소가 분명히 파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5. 정보

- 본부와 지역실시반과 긴밀히 연계되며 방역실시상 필요한 모든 정보의 수용, 분석, 기록 및 전달, 전파
- 각종홍보(교육, 훈련, 정책, 진행상황 등)의 총괄

6. 야생동물

- 방역실시상 야생동물의 관련분야 협조 지원
- 장비, 인력, 기술, 정보 등
- 야생동물의 생태계 파악 및 밀도 조절
- 역학조사, 진단, 폐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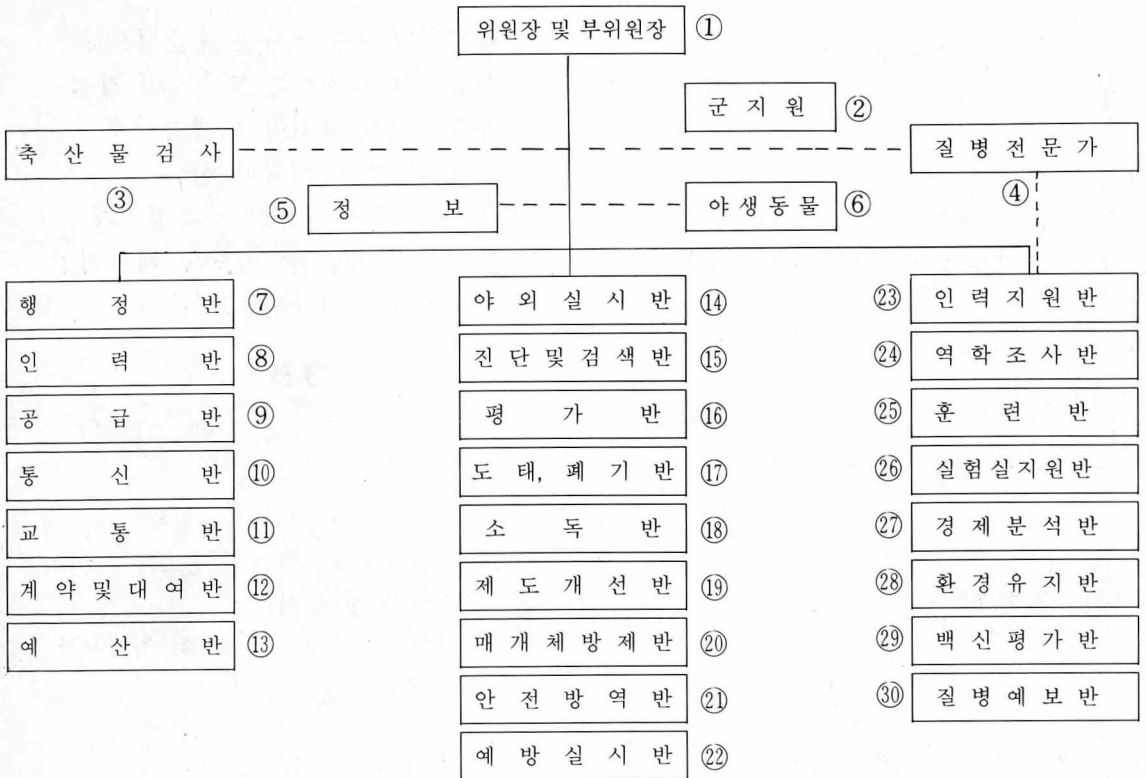
(행정부서)

7. 행정반 8. 인력반 9. 공급반 10. 통신반 11. 교통반 12. 계약 및 대여반 13. 예산반

(현장실시부서)

14. 야외실시반 15. 진단, 검색반 16. 평가반 17. 도태 폐기반 18. 소득반 19. 제도 개선반 20. 매개체 방제반 21. 안정 방역반 22. 예방실시반

미국의 동물질병 긴급 방역기구



(지원부서)

23. 인력지원반 24. 역학조사반 25. 훈련반 26. 실시험실지원반 27. 경제분석반 28. 환경유지반 29. 백신평가반 30. 질병예보반

혈청학적 역학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작업과정을 선진국처럼 위생검사에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함은 물론 도축되는 가축의 사육장소가 분명히 파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조치(도축시 원산지증명서 제시 등)가 시급한 실정이다. 혈청학적 역학조사를 도축장 중심으로 실시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내에 많은

두수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역학조사(예찰) 및 방역업무에 도축검사와 공수의사의 활용문제는 전면적인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이 병의 방역을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외국 여러나라들의 소중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력의 소모없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전문가의 종합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한국형 오제스키 병 방역대책”이 수립·실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